

# 춘천교구



## 목차

02 말씀의 향기  
독수리 날개

03 평신도 단상  
레지오 활동 인연

04 특집  
우리 신앙의 뿌리-공소(公所)<sup>3</sup>

05 열린 마당  
한림대학교 특별전  
장발(루도비코, 1901~2001)

06-07  
교구 및 교회 소식 · 알림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1독서** 탈출 19.2-6ㄱ

**화답송**

-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로마 5,6-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복음** 마태 9,36-10,8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이지목 안셀모 신부  
거진 승리의 모후 본당

## 독수리 날개



예수님의 열두 사도는 참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시선과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의지와 마음을 온전히 기억하는 사도들이 참 부럽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열두 사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려줍니다.


서품식이 떠오릅니다. 초대받은 본당 식구들이 정해진 앞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데, 어느 본당의 아무개를 호명합니다. 흘끔흘끔 우리 본당 누구를 쳐다보면서 숨죽여 기도하는 모습들도 떠오릅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인간 아무개가 죽고, 사제로 일어서는 순간이면 가슴 한켠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죽었다.’고 다짐하는 순간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누군가는 별칭계 달아오른 새 사제의 얼굴을 보고 숨죽여 웃기도 하고, 덩달아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제의 길에 필요한 기도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눈물범벅이 된 줄도 모르고, 버벅대고 푹푹거리는 새 사제의 서투른 몸짓을 보는 선배 사제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제 같다.” 분명 새 사제인데, 새 사제 같다는 말은 깊은 성찰입니다.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 그 마음을 되찾은 기분이며, 함께 걸어갈 든든한 형제 사제를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본디 먼저 사제로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제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청하는 것이 기꺼운 마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뽑으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받았습시다만, 그들 자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랑에 그들이 굶주리길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힘차게 나아가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채워주길 바라며 더 많은 방식으로 사랑을 채워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느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여정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짐’으로 회상합니다. 가장 든든한 뒷배가 하느님이었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솔모루 보좌 시절, 새로이 부임하셨던 김현준 울리오 신부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독수리 날개를 타고 왔습니다.”

저에게는 서품받는 날의 회상이, 어느 신자에게는 어느 신부님이 성사를 베푸시, 신부님과의 한 끼 식사가, 독수리 날개를 탔던 기억이 됩니다. 서로의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불러주며, 함께 다독이며 기도했던 나날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의 날개를 타고 지금으로 건너온 값진 하루를 감사하도록 합시다. 

보편적 친교를 이루어야 하는 사랑의 실재입니다.



## 레지오 활동 인연



**아**름다운 계절 5월, 성모님의 달을 보내면서 90세까지 성모님의 군단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신 어머니 사례 중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1990년쯤에 이웃 아파트에 딸 둘이 있는 젊은 아기 엄마가 아들을 기대하면서 공을 들여 셋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들여 출산하고 보니 딸 쌍둥이를 낳아 딸만 넷이 되었습니다. 실망한 아기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하면서 딸 둘도 돌보지 않으며 갓난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 찾아가셔서 '나는 ○○성당에 다니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안나라는 사람이다.' 라고 통성명을 하여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나도 딸 셋이 있는데 그중에 큰딸이 딸 다섯을 낳았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들이 지금은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모른다며 어르고 달래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설득하셨습니다. 며느리도 딸 셋을 낳았다고 다독이며 매일 찾아가 아기를 돌보고, 밥해주고 미역국도 끓여 나르며 산후조리를 자청하셨습니다. 한 달정도 정성껏 돌보니 아기들도 예뻐지고 생긋생긋 웃는 아기를 보며 산모도 정신을 차려 조금씩 일어나 움직이면서 기운을 차렸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둘째가 유난히 어머니를 따랐고 좋아하면서 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백일이 되면서 방문 횟수를 줄이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셨습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 다른 본당 관할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고, 방문이 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잊혔다고 합니다.

그 후 30년쯤 지났을 때 손주가 신기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이더라고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흡사하게 꾸며져 있었다면서요. 그 집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어머니는 좋은 인연인가보다 생각하며 손주에게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덧 상견례를 하는 날이 찾아왔고 어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손주의 여자친구는 과거 어머니께서 돌보던 집의 큰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가족은 어머니께서 살던 집에 이사 와서 입교하여 하느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5년 전, 성모님의 달인 5월에 아름다운 성전에서 혼배성사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남매를 낳아 성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레지오 활동 중에 만났던 인연이 30년 후에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된, 기적 같은 레지오 활동 사례입니다.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 公所

## 우리 신앙의 뿌리-공소(公所) <sup>3</sup>

### 윗샘밭 공소

2006년 발간된 <우리의 뿌리>를 다시 읽으며, 우리 신앙의 원천을 되새깁니다.



소양댐을 바라보고 있는 윗샘밭 공소는 현재 우두 본당(오상철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관할이다.

1960년(당시 부 야고보 외국인 신부)에 설립된 공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처음에는 소양로 본당 소속이었으나, 1999년 9월 우두 본당 분가로 관할 구역이 이전되었다.

여느 공소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공소 건물 없이, 대대로 구교 집안이었던 김명례(베드로) 형제 집에서 공소 예절과 미사를 드렸다(전양순 루시아 자매 증언 참고). 그러나 튼튼하지 않은 가정집이라 철거에 이르게 될 상황이어서 박 토마 주교의 배려로 공소 건물을 짓기로 했다. 그 때 교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소 신자들이 대지 마련을 해야만 했다. 당시 상천초교 교사로 부임해 온 이강원(안드레아) 형제와 초기 영세자였던 이상호(프란치스코) 형제가 앞장서서 대지 구입 모금을 시작했다. 그 때가 1977년 김종석 토마 신부 재임 시였다. 총 27세대(남 32명, 여 43명)로 열정적인 신심을 바탕으로 어렵게 대지 220평을 마련하여 1978년 가을에 공소 건물이 완공되었다. 건축 허가비용 절약으로 무허가 건물로 지어, 그 동안 우여곡절 끝에 1998년 5월 10일 재단법인 천주교춘천교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현재 공소 신자 수는 5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우두 본당으로 소속된 후 미사는 본당으로 가서 드리게 되어 공소 미사는 없다(예전에는 매월 첫 주 토요일 미사 있었음).

요즘 사순 시기 동안 공소에서는 매일 3시에 십자가의 길 기도와 예수 성심 자비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이학규(윤호요셉) 부부가 공소를 관리하고 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종루 위에서 예수님은 활짝 팔 벌려서 계신다.

그곳이 윗샘밭 공소이다.

(좋은이웃 2001년 5월호)

### 오늘날의 윗샘밭 공소

본당 승격 **샘밭 성 베드로 사도 본당**  
033-241-6613

주임 **김병운 야고보 신부**

주소 **춘천시 상천 2길 39**

신자수   **총**  
(2025 기준) **남 295 여 366 661**

2005년 2월 13일 준본당이 되었다가,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에 의해 2006년 9월 15일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본당 관할에 발산 공소가 있다.



## 장발 루도비코

장발 루도비코(호 우석雨石, 1901~2001) 선생은 한국 근대 화단의 태두이며, 교육자이고, 한국교회 성(聖) 미술의 개척자입니다.

장발 선생의 가문은 고조부 대에 평안도 중화군에서 일찍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그의 형 장면 요한(1899~1966) 총리는 프란체스코 제3회 재속 회원으로, 동생 장정은 아네타(1906~1950?) 수녀는 메리놀 수녀회의 일원으로 한국전쟁 당시 순교하는 등 독실한 천주교 가문입니다. 또한 작품을 기증한 셋째 아들인 故 장흔 코넬리우스 신부는 미국 성 빈센트 수도원 소속으로 미국 뉴욕의 사목국장을 역임하였고, 춘천주교였던 故 장익 요한 주교는 형 장면의 아들로 조카이기도 합니다.

장발 선생은 1920년대 초 일본 도쿄예술학교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미술사와 미학을 수학하였으며, 1925년 로마 바티칸에서 거행된 '조선 순교자 79위 시복식'에 평신도 대표로 그의 형인 장면 총리와 함께 참례하였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신앙과 예술세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성 베드로 대성전 제단화로 사용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 <김효임 골롬바, 김효주 아네스 자매>상을 한국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그려내었으며, 특히 국내 최초로 서양화 기법을 도입한 성화인 명동성당의 <14사도>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54년 서울에서 현대미술가들의 《성미술 전람회》 개최, 1959년 최초로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한국 조각가에 의한, 한국 자본에 의해 세워진 혜화동성당의 건립 등 교회 미술의 굵직한 성과를 주도하였습니다.

故 장흔 신부 기증 한림대학교특별전 《장발》은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단순한 회고에 머무르지 않고, 선생께서 남기신 예술정신과 시대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며, 사유와 감상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마침 장발 선생의 탄생 125주년이자 서거 25주기를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장발 선생의 작품을 통해 한국적 성미술의 서사적 재발견과 현대추상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故 장흔 신부 기증  
한림대학교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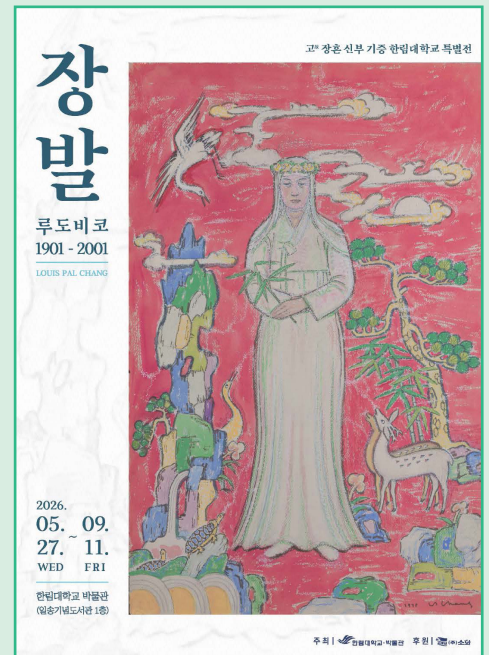
# 장 발

## 루도비코 1901~2001

5. 27(수)

~

9. 11(금)



전시장소: 춘천 한림대박물관 기획전시실, A 라운지

전시부문: 성화, 추상화(총 25점)

관람시간: (평일) 10~16시

휴관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관람료: 무료

문의: 033-248-2850~2

### 전시 연계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 전시해설 매주(수) 12:30, 사전예약

<제7기 시민박물관대학> 장발(루도비코, 1901~2001)을 보다:  
성미술에서 추상미술까지

6. 18(목) 14~16시, 장발 화백과 가톨릭미술

신지철\_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6. 25(목) 14~16시, 장발 화백과 추상미술

조은정\_국립목포대학교 교수

7. 2(목) 08~17시, 문화유적 답사(명동대성당, 서소문성지 등)

신지철\_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대상: 누구나 / 수강료: 무료

장소: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4층 교육실

신청: 한림대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신청

문의: 033-248-2852, 2850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연봉 본당 사목방문

6. 19(금)~21(주일)

견진 성사

초당 본당: 6. 27(토) 18시

갯세마니 피정의집 관리직원 채용 공고

모집인원: 남자 1명

업무내용: 피정의 집 내·외부시설관리

제출서류: 이력서, 본당신부 추천서와

교적사본, 건강진단서

마감: 6. 24(수)까지 / 전형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면접일시 추후 개별통보)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

postscrip95@gmail.com

제출처: 인제군 빙어마을길 196

갯세마니 피정의집

문의: ☎ 033-461-4243

속초 동명동 성당 앞

초고층 아파트 건축 반대 서명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952년 한국전쟁 중 세워진 석조 성당이

바로 앞 초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70년 역사를 지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찬미받으소서 2차 생태피정

6. 14(주일) 09:30, 양양 오상영성원

가톨릭성서 7차 창세기 연수

6. 15(월)~16(화) 가톨릭회관

신학생 수련회

6. 15(월)~17(수) 설악동 성당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미사

6. 16(화) 11시, 한살강당

성령새신봉사회 기도회

6. 16(화) 19~22시, 소양로 성당(미사: 19시)

특강: 윤민재 베드로 신부

☎ 010-6703-3133 문의

평신도 선교사 2분기 모임

6. 17(수) 10시, 관인공소

사회복지회 제7차 정기이사회

6. 17(수) 16시

청년 찬양 성시간 PEACE

6. 19(금) 20시, 교육원

마태오복음 통독 피정

6. 20(토) 10시, 가톨릭회관

체나콜로 기도 및 미사

6. 20(토) 소양로 성당

10시: 체나콜로 기도 / 11시: 미사

☎ 010-5855-3996 문의

레지아 1단계 영북지구 단원 교육

6. 20(토) 12:50, 교동 성당

가톨릭성서 1차 사도행전 연수

6. 20(토)~21(주일) 영동가톨릭사목센터

6월 예비 신학생 모임

6. 21(주일) 14시, 중부: 흥천 성당 / 서부: 포천

성당 / 영동: 노암동 성당 / 영북: 청호동 성당

6. 28(주일) 14시, 춘천·남춘천: 우두 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기간: 6. 17(수)~25(목) / 방법: 미사 전·후 기도문 함께 봉헌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09면 / 매일미사 184면)

지향: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 6. 17(수) ●●●●●●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 6. 18(목) ●●●●●● 상호 존중을 위하여
- 6. 19(금) ●●●●●● 평화의 일꾼을 위하여
- 6. 20(토) ●●●●●● 이산가족과 북향민을 위하여
- 6. 21(주일) ●●●●●●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 6. 22(월) ●●●●●●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 6. 23(화) ●●●●●●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를 위하여
- 6. 24(수) ●●●●●●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 6. 25(목) ●●●●●●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교구 미사: 6. 25(목) 19시, 솔모루 성당, 김주영 주교님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6. 20(토) 14시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010-9695-1366	한 사람은 온세상보다 더 소중합니다.

속초 장사향 장사회집

할어회

대계, 흥계

☎ 010-8259-3979

현윤 프란치스코 · 장근해 에멜리아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통큰장어

장어구이(민물장어, 바다장어, 꿈장어)

정성껏 고아낸 몸보신 장어탕

퇴계로 69번길 12번지(보훈회관 앞)

☎ 253-7108, 010-6373-3914

홍장성 대건안드레아 · 최인숙 세실리아

**인 준 시 설**

**청소년 인터넷 심터 캠프 참가자 모집**  
 6. 27(토)~28(주일), 강원특별자치도자연학습원  
 대안활동, 집단상담, 스마트폰 내려놓고 재밌게 놀기!  
 대상: 영서 지역 초등 4~6학년 40명  
 ☎ 033-256-2000 신청 상담원 권능

**밀알재활원 직원모집**  
 생활재활교사 2명(여속소)0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접수: 우편, 이메일 irene- moon@naver.com  
 ☎ 033-261-3112 www.milalfriend.or.kr

**밀알일터 훈련생 모집**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중증)  
 훈련시간: 09:00~16:30(월~금)/셔틀 차량 운행  
 훈련내용: 임가공작업/직업재활/프로그램 등  
 ☎ 033-261-7112 전화접수 후 내원

**춘천시립요양원 입소자 및 직원 모집**  
 입소자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 급여대상자)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033-261-9658

**가톨릭춘천신협 출산축하금**

소중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올해도 저의 가톨릭춘천신협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지원금액 :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성당사무실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부모기준)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죽림동) 033-255-6742  
 지점(거두리) 033-262-6742

**일 반 알 림**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쉽고 함께  
 제주여행 우도섬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7. 18~20/7. 24~27/7. 29~31/8. 1~4  
 8. 8~10/ 8. 14~16/8. 20~23/8. 28~30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산티아고 순례길 800km(44일)**  
 9. 17/599만원(+2,500유로) catravel.co.kr  
 루르드 3박+파티마 2박 포함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 11 유럽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95만원)  
 9. 7 산티아고 117km 도보 순례 12일 (465만원)  
 9. 8 이탈리아 (전대사) 특별 순례 11일  
 10. 12 체코 독일 폴란드 헝가리 12일  
 10. 14 프랑스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2일 (685만원)  
 10. 19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 02-319-2533 www.catholictravel.co.kr

**천송이 천번 기도회 및 은사 치유 피정**  
 천송이 천번 기도회: 6. 15(월) 12:30~17:00  
 은사 치유 피정: 5. 23(토)~9. 5(토) 16주간  
 12:00~17:30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미사/안수/중식무료)  
 ☎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제주산들평화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성지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한라산숲길: 7. 17~19 / 우도: 7. 24~26  
 올레바닷길: 9. 17~19 / 억새길: 10. 14~16  
 마라도 순례: 7. 3~5/7. 10~12/8. 21~23  
 추자도 성지순례: 9. 4~7 / 9. 11~14  
 10. 31~11. 3 / 11. 14~17 / 11. 26~29  
 ☎ 064-732-4702 면형의 집

**예수회후원회 해외성지순례**  
 7. 16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 제헌절 연휴  
 8. 12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과 안중근의사 발자취  
 (하얼빈, 장춘, 단둥, 차쿠, 대련-5일 180만원)  
 9. 24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 추석 연휴  
 10. 12 발칸 3국 및 메주고리에(10일 498만원)  
 10. 26 알프스 주변 수도원순례 및 성모성지(12일 64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애덕의 교회사, 이진현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헬레니즘 시대, 주원준 박사  
 -에밀리 디킨슨: (침묵하는)신에 대한 언어의 실험, 김민철 신부  
 -루카와 사도행전, 나자렛에서 로마까지, 김건동 신부  
 -자크 마리탱의 그리스도교 인간학, 김민 신부  
 -예수의 윤리: 사랑하며 사는 삶의 경로, 박상훈 신부  
 -현존 영성수련(7주 or 8주), 김영근 신부  
 \*각 6주,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02-3276-7733 신청 center.jesuit.kr

**수녀원에서 보내는 여름휴가-staycation**  
 7. 17~19 / 7. 21~23 / 7~24~26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장소: 강원도 속초 (선한목자예수수녀회)  
 ☎ 010-4882-9674 신청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02-778-8565**  
 10. 14 유럽4국 성모발현지 12일(545만원)  
 10. 19 스페인남부, 포르투갈 12일(519만원)  
 10. 21 메주고리에 순례 11일(399만원)  
 11. 9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 12일(560만원)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수강료: 만원  
 주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4길 14  
 ☎ 02-2274-1843,4/ www.cdcc.co.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지 오 건 장**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도배, 장판, 욕실, 주방시공  
 건축, 목공 국가자격증 소유  
 ☎ 010-8480-1789, 010-4075-2166 이보람 가브리엘

**건축물 해체 전문 건축사 행정사**

춘천교구 지역 건축물 해체 인허가  
 및 철거공사(수익금 일부를 해당  
 지역 분당 본인 이름으로 후원)  
 ☎ 010-4735-6500  
 김한근 안토니오

**법무법인 중심 강릉사무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7인 선정  
 류재울 변호사(토마스아퀴나스)  
 서영우 변호사(이보헬러리)  
 ☎ 033-920-8416  
 류재울 토마스아퀴나스 대표 변호사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서림원-스테이, 카페(평창)**

서림원(숙박시설), 카페(커피 등 음료)  
 예가체프 콜드브루 맛집  
 ☎ 0507-1424-5648  
 박규홍 라파엘·이무현 미카엘

**(주)광건정비사업소(홍천)**

1급 자동차 종합 정비  
 자동차·바이크 검사, 조기폐차  
 자동차·바이크 검사비 전액 기부  
 (강생의 터, 홍천군청 사회복지과)  
 ☎ 010-4201-6160 길영한 베네딕도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감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오티콘 보청기 속초점**

무료 청력 검사 / 이명 난청 상담  
 131만원 보조금 / 출장 방문  
 ☎ 010-5709-2112  
 김성현 루치오